

WEBVTT

00:00:09.386 --> 00:00:11.938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2.153 --> 00:00:17.326

이번 시간에는 김동리의
을화라고 하는 소설을

00:00:17.351 --> 00:00:19.432

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00:00:31.095 --> 00:00:36.957

을화라고 하는 소설은 을화라는
무당이 주인공입니다.

00:00:37.927 --> 00:00:45.193

이 을화는 김동리의 정말 빼어난 단편
무녀도를 장편으로 개작,

00:00:45.218 --> 00:00:46.929

고쳐 쓰는 겁니다.

00:00:47.524 --> 00:00:53.214

무녀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무당,
무녀는 모화라는 이름이에요.

00:00:53.356 --> 00:00:57.212

그런데 을화로 가면서 을화로
이름이 바뀌었습니다.

00:00:58.681 --> 00:01:03.248

무녀도에서 을화까지,
단편에서 장편으로.

00:01:03.811 --> 00:01:09.443

그리고 이야기가 집중된 사건에서부터
다양하게 펼쳐지는

00:01:09.468 --> 00:01:15.588

여러 장면의 모습으로
이렇게 바뀌어 간 것은

00:01:15.965 --> 00:01:20.165

아마도 작가가 무녀도에서
다 말하지 못한

00:01:20.411 --> 00:01:25.827

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충돌이라고 하는
이것을 통해서

00:01:25.852 --> 00:01:30.379

당시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
이것을 긴 호흡으로

00:01:30.730 --> 00:01:34.307

또 다층적인 서술로
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,

00:01:34.332 --> 00:01:36.018
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
00:01:37.082 --> 00:01:40.968
김동리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은
1930년대고

00:01:41.724 --> 00:01:49.334
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게
시국적 사변이 중첩된 혼란기입니다.

00:01:49.889 --> 00:01:52.654
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어요.

00:01:52.679 --> 00:01:55.469
1937년에 중일 전쟁이 있었고

00:01:55.793 --> 00:02:00.508
1941년에 태평양 전쟁으로
이어지던 때입니다.

00:02:02.075 --> 00:02:05.145
일본 제국주의자들은
우리 민족이 가진

00:02:05.170 --> 00:02:09.027
모든 민족적인 것을
말살하려 했습니다.

00:02:09.209 --> 00:02:15.931
우리말과 글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,
이건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죠.

00:02:15.956 --> 00:02:18.631
김동리에게는 이것이 너무
충격적이었습니다.

00:02:18.656 --> 00:02:21.503
그래서 그는 이런 울분의 상황에서

00:02:21.528 --> 00:02:30.677
문학을 통해서라도 민족의 얼과 넋을
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

00:02:31.231 --> 00:02:34.100
이 시기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?

00:02:34.125 --> 00:02:39.471
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
생각하던 때에 김동리가 만난 것이

00:02:39.496 --> 00:02:42.095
바로 샤머니즘이었습니다.

00:02:42.754 --> 00:02:46.971
그러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
미신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죠.

00:02:46.996 --> 00:02:53.459
미신으로 추락해 있는 샤머니즘을
민족의 근원적인 얼과 넋을 찾는

00:02:53.484 --> 00:02:58.080

대상으로 삼기에는
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

00:02:58.943 --> 00:03:01.756

그래서 종교의 기능이나
본질이라고 하는

00:03:01.781 --> 00:03:07.207

그 문제에 대한 탐색을 시작했죠.

00:03:07.445 --> 00:03:09.783

그러기 위해서 김동리가
생각했던 것은

00:03:09.808 --> 00:03:14.305

이것을 다른 종교와 대비시키는 길을
찾을 수밖에 없다.

00:03:14.873 --> 00:03:17.557

그래서 어릴 때부터 의지해 오던
기독교를

00:03:17.582 --> 00:03:19.960

그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.

00:03:21.557 --> 00:03:28.494

김동리는 대구 계남소학교와
개성중학을 다녔어요.

00:03:28.519 --> 00:03:34.035

그런데 이 미션 스쿨들을 다니면서
동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했죠.

00:03:34.668 --> 00:03:44.161

그래서 나중에 사반의 십자가 같은
수발한 소설을 쓰게 되는데

00:03:44.257 --> 00:03:49.158

다만 동리가 그로부터 기독교인으로
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

00:03:49.314 --> 00:03:53.860

그렇기 때문에 사반의 십자가에
나타난 동리의 기독교 이해는

00:03:53.885 --> 00:03:56.641

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킵니다.

00:03:57.355 --> 00:04:02.349

그리고 동리의 큰형이
범부라는 이름인데

00:04:02.504 --> 00:04:07.361

경남 사천군 곤양면의
다솔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

00:04:07.386 --> 00:04:09.119

거기에 주지로 있었어요.

00:04:09.307 --> 00:04:15.751
동리는 젊었을 때, 어린 시절에서
젊은 시절로 넘어가던 그 무렵에

00:04:15.776 --> 00:04:20.333
다솔사에서 그 지역 아이들을
가르치면서

00:04:21.285 --> 00:04:23.700
생계를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.

00:04:24.031 --> 00:04:27.811
그러니까 기본적으로
종교에 대한 이해가

00:04:27.836 --> 00:04:30.762
폭넓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.

00:04:31.205 --> 00:04:34.765
동리가 문단에 나온 것은
1934년이었습니다.

00:04:34.790 --> 00:04:38.990
조선일보 신춘문예의
백로라고 하는 시가 당선되고

00:04:39.394 --> 00:04:46.068
그 이듬해 1935년에 중앙일보
신춘문예 화랑의 후예,

00:04:46.809 --> 00:04:50.828
경주 사람이니까 화랑의 후예라는
소설을 쓰기가 쉬웠겠죠.

00:04:50.971 --> 00:04:55.774
그런데 이때 김동리는 김창귀
또는 김시중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.

00:04:55.799 --> 00:04:58.688
동리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호입니다.

00:05:00.636 --> 00:05:06.844
1936년에는 동아일보 신춘문예의
산화라고 하는 이 작품이

00:05:06.869 --> 00:05:08.915
김동리라는 이름으로 당선되고

00:05:08.940 --> 00:05:12.371
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
걸기 시작했습니다.

00:05:13.759 --> 00:05:16.487
좌우익의 이념적 논쟁 가운데

00:05:16.512 --> 00:05:25.376
동리는 순수 문학 또는 민족 문학을
주창하는 논자들의 선두에 있었죠.

00:05:25.415 --> 00:05:31.496
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경의 형식,

가장 궁극적인 형식을 찾아서

00:05:31.521 --> 00:05:34.378

그거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
생각을 했습니다.

00:05:34.403 --> 00:05:36.478

일시적으로 유한한 것이 아니라

00:05:36.503 --> 00:05:43.013

과괴와 생성의 시간을 넘어선 곳에
존재하는 영원한 아름다움 또는 진실.

00:05:43.444 --> 00:05:46.083

이런 것을 겨냥한 것이
문학이 아닌가?

00:05:46.249 --> 00:05:52.615

그와 같은 김동리의 문학관은
천지자연의 절대성에,

00:05:54.699 --> 00:05:58.096

거기에 비춰서 자아의 소멸.

00:05:58.121 --> 00:06:02.883

그러니까 한 개인의 우수한, 뛰어난
이런 점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

00:06:02.908 --> 00:06:07.978

그것이 천지자연 속에 합일되고
소멸되어 감으로써

00:06:08.003 --> 00:06:12.508

그것이 이를테면 구경의 형식을
지향하는 것이라는

00:06:12.689 --> 00:06:16.889

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

00:06:18.179 --> 00:06:24.444

이러한 어찌면 근대의 반대편으로 가는
반근대성의 문제죠.

00:06:24.469 --> 00:06:28.927

근대는 자아, 개인의 문제가
부각되는 것이니까요.

00:06:29.247 --> 00:06:33.061

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샤머니즘의
세계관입니다.

00:06:33.086 --> 00:06:37.286

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
신적인 것 또는 준신적인 것.

00:06:37.514 --> 00:06:43.545

그러니까 확립된,
Establish된 종교에서는

00:06:43.570 --> 00:06:46.963

샤머니즘을 잡신으로 치부를 하겠죠.

00:06:46.988 --> 00:06:49.588
그렇지만 실제로 샤머니즘 연구자들은

00:06:49.613 --> 00:06:54.819
그 샤머니즘에서 사용하고 있는
주술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

00:06:55.065 --> 00:06:58.203
신화에 관한 것이다,
이런 주장을 합니다.

00:06:58.984 --> 00:07:04.109
샤머니즘에 있어서 샤먼은
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주술사

00:07:04.738 --> 00:07:09.608
또 한국의 전통적인
사고 구조에 있어서

00:07:09.633 --> 00:07:11.377
주술이라고 하는 것은

00:07:11.402 --> 00:07:16.790
병마나 악령 같은 것을 물리치는
이런 힘을 가졌다고 보았던 것이죠.

00:07:17.861 --> 00:07:20.517
이런 샤머니즘의 세계관은 이를테면

00:07:20.542 --> 00:07:25.376
이 사회가 근대화되어 가는 것과는
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.

00:07:25.543 --> 00:07:27.197
이런 괴리 현상.

00:07:27.222 --> 00:07:31.687
이것을 나중에 동리는
제3 휴머니즘 같은

00:07:31.712 --> 00:07:34.058
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.

00:07:35.056 --> 00:07:40.189
그래서 동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
문제를 이원화하기보다는

00:07:40.214 --> 00:07:44.108
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
끌어안으려고 했죠.

00:07:44.133 --> 00:07:49.393
그리고 죽음 가운데 접속되어 있는
삶의 의미가 무엇인가?

00:07:49.547 --> 00:07:51.523
이것을 찾으려 했던,

00:07:51.548 --> 00:07:56.356
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

넘어서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

00:07:56.381 --> 00:08:02.092
철학적 탐색을 전개했던 작가다,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08:04.350 --> 00:08:07.568
시대는 불안하고 혼돈의 현상을
보이고 있었고

00:08:07.593 --> 00:08:12.906
이런 허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
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을

00:08:12.931 --> 00:08:16.537
신과 인간의 문제로
바라본다고 하는 것.

00:08:16.562 --> 00:08:19.084
이것은 어쩌면 그 시대적 질곡을
벗어나는

00:08:19.109 --> 00:08:21.636
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.

00:08:23.964 --> 00:08:28.164
신과 인간 사이에서
새로운 제3의 길,

00:08:28.448 --> 00:08:32.648
이것이 동리가 주장했던
휴머니즘의 새로운 단계,

00:08:32.673 --> 00:08:35.677
제3휴머니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

00:08:37.189 --> 00:08:41.123
동리의 문학 세계는 대체로
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

00:08:41.148 --> 00:08:43.639
살펴볼 수 있습니다.

00:08:43.874 --> 00:08:50.285
초기, 처음에는 토속적이고
샤머니즘적인 동양적 신비의 세계

00:08:50.527 --> 00:08:52.822
이런 것을 추구해서

00:08:53.254 --> 00:09:01.754
그러니까 무녀도 또는 신화나 전설의
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는

00:09:01.779 --> 00:09:04.033
황토기 같은 이런 작품.

00:09:04.116 --> 00:09:06.822
이런 것들이 초기의
김동리의 세계입니다.

00:09:06.847 --> 00:09:09.814
중기에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

00:09:10.214 --> 00:09:14.107
보다 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이
강화되면서

00:09:14.132 --> 00:09:18.962
또 문학의 사회 참여적인 의식이
강하게 나타나는

00:09:18.987 --> 00:09:23.703
귀한 장정, 흥남 철수
제목만 봐도 그렇죠?

00:09:23.826 --> 00:09:26.506
역마 이런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.

00:09:26.531 --> 00:09:36.345
역마의 무대는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
경상도와 전라도의 접경 지대에

00:09:36.370 --> 00:09:38.413
화개장터라고 하는 곳입니다.

00:09:38.438 --> 00:09:43.157
지금도 그 화개장터에 가면
역마 문학비가 서 있습니다.

00:09:44.267 --> 00:09:47.334
후기에 와서는 보다
근원적인 인간 문제,

00:09:47.359 --> 00:09:48.974
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

00:09:48.999 --> 00:09:53.481
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
형상화해서

00:09:53.506 --> 00:09:58.691
이것을 종교의 문제와 결부하는
등신불, 사반의 십자가,

00:09:58.716 --> 00:10:01.659
을화 같은 이런 작품을 남겼습니다.

00:10:02.122 --> 00:10:06.322
등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
소재로 한 불교의 신앙을

00:10:08.189 --> 00:10:12.389
몸을 던져서, 자기 몸을 태워서
공양을 하는

00:10:12.414 --> 00:10:20.885
이런 전혀 새로운 방식의 불교적 신앙
이걸 보여주는 소설이고

00:10:20.910 --> 00:10:26.108
사반의 십자가는 사반이라고 하는

인물을 중심으로 해서

00:10:26.133 --> 00:10:33.095
이 사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
처형될 때 왼쪽에 달렸던 강도였다.

00:10:33.120 --> 00:10:35.312
성경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.

00:10:35.337 --> 00:10:40.539
그 강도의 이름을 사반이라고 붙이고
이 사반이 유대 열심당

00:10:40.999 --> 00:10:45.768
Zealot라고 하는,
성경에서는 셀롯이라고 씁니다.

00:10:46.226 --> 00:10:47.688
그 당원이었다.

00:10:47.713 --> 00:10:49.952
그러니까 유대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

00:10:49.977 --> 00:10:56.918
무장 투쟁으로 로마군을
몰아내고자 하는 저항 단체였죠.

00:10:57.377 --> 00:10:59.592
그래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이

00:10:59.617 --> 00:11:08.590
예수와 신성, 인본주의의 문제
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

00:11:08.866 --> 00:11:14.442
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돌의 문제,
그것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 문제

00:11:14.467 --> 00:11:16.616
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.

00:11:17.368 --> 00:11:23.068
을화는 매우 토속적이고 향토적인
소재를 가지고 있고

00:11:23.093 --> 00:11:28.553
김동리가 아니면 쓸 수 없는
독특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보여주는

00:11:28.578 --> 00:11:30.107
그런 작품이죠.

00:11:30.374 --> 00:11:34.574
동리는 이 작품에서 원형적인
이미지를 통해서

00:11:35.250 --> 00:11:39.139
가장 향토적인 것이
가장 민족적인 것이고

00:11:39.164 --> 00:11:42.805

가장 민족적인 것이
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

00:11:42.830 --> 00:11:44.950
원리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

00:11:45.522 --> 00:11:49.722
샤머니즘의 세계를 문학적으로
형상화하는 일

00:11:49.941 --> 00:11:57.983
또 샤머니즘에서의 삶과 죽음에 관한
문제를 문학으로 제기하는 일을 통해서

00:11:58.359 --> 00:12:00.400
한국 문학의 이 문제,

00:12:00.425 --> 00:12:05.662
한국의 토속적이고
민족적 색채가 강한 것을

00:12:05.807 --> 00:12:08.584
세계 문학에 제의해 보려고
했던 것이 아니냐?

00:12:08.609 --> 00:12:11.136
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

00:12:12.180 --> 00:12:18.278
을화는 무녀도에서 시작을 했고
무녀도가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

00:12:18.303 --> 00:12:22.090
분위기만 약간 보여주었던
그 샤머니즘의 세계를

00:12:22.595 --> 00:12:26.795
보다 포괄적인 문학 작품으로
형상화했습니다.

00:12:27.216 --> 00:12:29.926
그래서 이제 개작을 했다는 얘기죠.

00:12:30.087 --> 00:12:34.897
이 작품의 주제가 표층적으로는
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과

00:12:34.922 --> 00:12:39.122
토착 민간 신앙, 곧 샤머니즘과의
갈등을 다루고 있지만

00:12:39.147 --> 00:12:42.125
거기에는 인간과 신의 갈등

00:12:42.638 --> 00:12:48.447
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이
자신의 자아를 지키면서

00:12:48.472 --> 00:12:53.798
또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
어떤 행동을 유발하느냐 하는

00:12:53.991 --> 00:13:03.271
이런 인간 본연의 문제에 관한
다층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.

00:13:04.374 --> 00:13:10.517
이 작품 속의 주인공인 을화,
무당 을화는

00:13:10.542 --> 00:13:15.035
병을 앓다가 자신에게
신이 내렸음을 알고 내림굿을 통해서

00:13:15.060 --> 00:13:17.006
영험한 무당이 됩니다.

00:13:17.126 --> 00:13:20.568
을화가 무당이 되는 것은
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

00:13:20.593 --> 00:13:24.267
영계를 여행하는 일종의
엑스터시 같은 거죠.

00:13:25.475 --> 00:13:27.943
을화는 이 정신적 이상 상태.

00:13:28.122 --> 00:13:31.611
여러분, 무녀를 정신과 의사한테
진찰하게 하면

00:13:31.636 --> 00:13:34.444
정신과 의사들이 전부 다
병이라고 말합니다.

00:13:34.469 --> 00:13:36.807
그러나 무녀들은
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

00:13:36.832 --> 00:13:41.996
이것은 뭔가 이름할 수 없는
그리고 자신이 통할 수 없는

00:13:42.021 --> 00:13:44.837
신화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

00:13:44.862 --> 00:13:51.313
실제로 그것이 한국 민족사에 있어서
일정한 수용을 보이고

00:13:51.338 --> 00:13:53.218
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.

00:13:53.243 --> 00:13:59.482
그래서 이 을화는 자신의 의지를
가지고 신과 직접 교통하고

00:13:59.507 --> 00:14:01.486
종교적 의례를 행합니다.

00:14:01.511 --> 00:14:04.708

바로 이러한 정신적 이상 상태.

00:14:05.293 --> 00:14:09.214

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
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

00:14:09.239 --> 00:14:10.967

샤머니즘의 문제.

00:14:10.992 --> 00:14:15.949

이것이 이 작품의 바탕이고
그 샤머니즘과 기독교,

00:14:16.092 --> 00:14:20.851

을화와 그 아들 영술의 대결

00:14:20.984 --> 00:14:23.304

이것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결이
아니죠.

00:14:23.582 --> 00:14:30.304

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

00:14:30.638 --> 00:14:35.227

그리고 새롭게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
나타난 사상.

00:14:35.252 --> 00:14:40.549

이 양자가 충돌하는 걸쳐 쇼크,
문화 충격이죠.

00:14:40.898 --> 00:14:44.822

결국 을화가 아들 영술을
칼로 찌릅니다.

00:14:44.847 --> 00:14:50.682

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
탈혼의 상태에서 칼을 쓴 거죠.

00:14:51.234 --> 00:14:53.832

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이런 모습.

00:14:53.857 --> 00:15:01.152

인간의 심연 깊숙이 잠재해 있는
이런 신적인 문제, 근원적인 욕망

00:15:01.416 --> 00:15:06.247

이런 것들이 가족사의 비극이라고
하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

00:15:06.272 --> 00:15:11.316

소설로 형상화되었는데
그것이 곧 을화라고 하는 작품이죠.

00:15:12.417 --> 00:15:19.704

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
우리 정신 사이의 중요한 대목

00:15:20.047 --> 00:15:26.194

전통적인 사상과 새로운 근대적인
서구 중심의 사상이 충돌하는

00:15:26.219 --> 00:15:29.048

이 지점에서 우리의
삶이라고 하는 것이

00:15:29.073 --> 00:15:33.516

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,
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

00:15:33.737 --> 00:15:37.937

어떠한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
살펴볼 수 있습니다.

00:15:37.962 --> 00:15:40.119

을화를 다시 읽음으로써

00:15:40.144 --> 00:15:43.564

또는 더 나아가 무너도라고 하는
단편을 한번 다시 읽어봄으로써

00:15:43.589 --> 00:15:49.569

우리는 우리 삶의 밑바닥에
가라앉아 있는 한국인의 정서,

00:15:49.594 --> 00:15:55.431

사상 또 적층된, 오래된 삶의 모습

00:15:55.456 --> 00:15:59.656

이런 것을 함께
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